

19. 다니엘과 고레스

2012. 5. 6.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게 되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장에 고레스에 대한 기록과 관련된 예언을 살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단1:19~21]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20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십 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21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1. 지난 시간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지시대로 식생활을 하기로 한 사실에 비추어서 음식물 문제에 대한 성경적 사상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다니엘서의 기록은 말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어떤 상태에 이른 것입니까?

답: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직접 읽어보지요. 단1:12~16입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13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매 14 그가 그들의 말을 좇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15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16 이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그들이 왕의 진미를 먹는 사람들보다 윤택하게 보였습니다. 건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 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해서 이르는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으로 식생활을 합니다. 저는 50년 넘게 순 채식만 하는데요, 목사님이 보기에 윤택해 보입니까? 사람들이 제 피부가 매끈매끈하다고 말합니다. 무슨 비누를 쓰며 어떤 로션을 바르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화장품은 일절 쓰지 않거든요. 이건 여담이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건강했습니다. 물론 정신과 지능도 뛰어났지요. 오늘은 먹거리가 너무 흔한 시대입니다. 물론 미국이나 한국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만, 잘 먹는다는 것이 결국 잘못 먹는 것이 되어 병이 되지 않는지 모르겠네요. 고혈압이, 당뇨, 지방간, 관절염 등등 소위 성인병이라는 것이 식생활을 비롯하여 올바르게 건강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생활습관 병이지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성인병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생활습관 병이라는 말을 쓰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지혜와 선택을 따르는 것이 이 시대에 특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이 시대에 특히 좋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답: 다니엘서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예언이 주류를 이루는 내용입니다. 특히 끝에 대한 말이 많지요. 예수의 제자들이 세상 끝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것을 읽으라고 하셨지요. 마태24:15에 있습니다. 읽는 자는 깨달으라고 하셨습니다. 다니엘서를 연구하면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세상 끝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세상 끝이 이르기 전에는 다니엘서가 올바르게 깨달아지지 않을 것도 암시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세상 끝 시대가 아닙니까. 앞으로 왜 그렇게 말하는지 이유를 다니엘서에서 말하겠지만요. 이 세상 끝에 대한 예언을 바르게 깨닫기 위하여 우리는 건강한 지성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건강한 몸과 함께 맑은 두뇌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뇌신경이 깨끗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의 계시를 올바르게 깨달을 수 없다는 뜻이지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애청자들께서도 맑은 정신으로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말세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예,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군요. 이 친구들은 마침내 왕 앞에 서게 되지요. 아마도 최종 면접시험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결과는 어땠습니까?

답: 그야, 목사님이 읽어보시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읽어보세요.

[단1:18~20] 왕의 명한 바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더니 19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20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십 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와 총명이 열 배나 나았다고 했지요. 17절을 보면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요함이 예수 안에 있다고 골로새 2:2에 말했습니다. 특히 성경을 공부하는 우리들은 계시의 말씀을 따라 전적으로 예수님께 굴복하고 몸과 마음을 성경의 지시대로 가꾸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계시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두뇌가 흐리멍덩하면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깨닫는데 막대한 지장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통하여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서 음식물로 창조한 그것을 먹도록 감동하셨고,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를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4. 참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애청자들께서도 올바른 식생활로 건강한 몸과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는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까지만 생존했습니까? (왜 그렇게 묻지요?) 여기 21절 말씀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고 했으니깐요.

답: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참 의미 있는 말씀인데요, 다니엘 10장 1절을 보면 고레스 3년에 계시를 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고레스 3년까지는 생존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1:21만 읽으면 고레스 원년까지만 생존하고 죽은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됩니다. 다니

엘이 이렇게 기록한 것은 고레스 원년에 특별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 고레스 원년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까?

답: 역사적 기록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살펴보면 적어도 다니엘에게는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고레스는 페르시아 왕으로서 바벨론을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정복지 바벨론을 잘 다스리기 위하여서는 바벨론 상태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자세히 알아보는 데는 다니엘만한 사람이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이 포로 될 때에 18세 정도였다고 하니까 그때가 기원전 605년인데,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이 되었을 때는 기원전 538년이거든요. 그때 다니엘은 85세나 86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고레스가 다니엘을 부른 것이지요. 그는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으로서 바벨론 총리를 한 사람이며 박수장을 한 사람이니까 바벨론 사정을 아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지요. 다니엘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고레스 원년을 특별한 의미를 두고 기록한 것 같습니다.

6. 목사님 말씀은 그때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그때를 성경에 기록할만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답: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십시오. 다니엘은 유대인이고 포로입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포로가 되어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해방될 날을 고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이제 새 제국의 왕은 포로에 대하여 어떤 정책을 쓸 것인지 아주 예민해 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 9장을 읽으면 다니엘은 자기 선배 선지자들의 글을 연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장에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연구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루살렘이 70년간 황폐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지요. 다니엘이 계산해보니까 이제 그때가 거의 된 것이지요. 9:1,2을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칠십 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래서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9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바로 이런 때에 고레스가 다니엘을 부른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을 만나서 할 이야기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때 다니엘이 이사야 선지서 두루마리를 가지고 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에는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다니엘은 고레스 앞에서 그 예언을 읽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레스가 엄청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귀환하도록 조서를 내렸을 것입니다.

7. 이사야의 예언에 고레스가 엄청 놀랄 내용이 있다는 말씀인데, 그 내용을 말씀하시지요.

답: 이사야는 기원전 745-695년간 일한 선지자입니다. 고레스가 539년에 바벨론을 정복했으니까

이사야가 죽든 해로부터 계산을 해도 156년 전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44장 45장에 고레스의 이름이 기록되었고 고레스가 제국들을 점령할 것이며 특히 바벨론 점령에 대하여서는 그 방법까지 예언했습니다. 먼저 그 말씀을 한 번 읽어보지요. 이사야 44:26~45:6까지입니다. 목사님이 읽으시지요.

[사44:26~45:6]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27 깊음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28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네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45:1 나 여호와와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2 내가 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늦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3 네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4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5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6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고맙습니다. 이 말씀이 기이하지 않습니까? 먼저 45:4절에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고 했지요. 44:28에 고레스라는 이름이 나왔고, 45:4에는 네가 나를 알지 못했지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네게 칭호를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절에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라고 하면서 그로 하여금 열국을 정복하게 하겠다고 하셨지요. 44:27에 “깊음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벨론 성을 함락시킬 때의 전투 상황을 정확하게 예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5장을 공부할 때 자세히 말하기로 하지요. 자, 목사님, 다니엘이 고레스 앞에서 이 예언을 읽지 않았겠습니까? 고레스가 히브리어를 몰랐다면 통역을 세웠을 수도 있고 다니엘이 번역해서 읽었을 수도 있었겠지요. 고레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엄청 놀라지 않았겠어요?

8. 놀랐을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태어나기 거의 200년이나 전에 자기 이름이 유대나라 예언서에 기록된 것을 발견했을 때 정말 놀랐을 뿐만 아니라 엄청 감동을 받았겠네요.

답: 그렇지요. 고레스는 아마도 충격으로 혼절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네요. 그는 다니엘이 읽어주는 유대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그리고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적으로 명령한 대로 유다 포로들을 해방하고 귀환하며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하라고 조서를 내립니다. 이사야가 말했지요.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깊음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네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는 예언을 그대로 이루려고 한 것입니다. 고레스의 조서는 에스라서에 인용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읽으시지요. 에스라 1:1~4절입니다.

[스1:1~4]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2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3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와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4 무릇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 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 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감사합니다. 2절에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자기에게 주셨다고 고백하고 자기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했다고 고백했지요. 200여 년 전에 자기 이름까지 예언한 유다의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사45:4에는 너는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너에게 칭호, 즉 이름을 주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한다면 기쁘기도 하겠지만 아마 오금이 저려올 것 같지요. 예레미야를 통하여 70년 동안 예루살렘이 황무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예레미야보다 훨씬 오래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 고레스가 회복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9. 참으로 놀라운 예언입니다. 너무나 정확해서 200년 전에 예언했다고 믿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고레스 이후에 이런 글을 쓰면서 200여 년 전에 있었던 것처럼 꾸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답: 목사님이 잘 지적하셨네요. 그래서 오늘날 신학자들은 히스기야 시대에 선지자였던 이사야의 예언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사야서를 1장~39장을 진짜 이사야가 기록한 것이고 44장~66장은 이사야의 이름을 빌린 다른 사람이 훨씬 후대에 쓴 것이라고 주장하지요. 그래서 전반부를 쓴 이사야를 제1 이사야라 하고 후반부를 쓴 사람을 제2 이사야라고 합니다. 보수주의 신학자들도 이런 주장을 인정하는 편이지요. 문체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모두 이사야가 쓴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아는 고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믿는 고로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종말을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고레스에 대한 예언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하나님을 성경이 계시한 대로 믿지 않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10. 저도 목사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넉넉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애청자들께서도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셨겠지요. 이제 오늘 이야기를 결론지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목사님 말씀하시지요.

답: 다니엘 1장 마지막 구절 21절에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고 기록한 것은 이런 사실을 함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에게는 기념비적인 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그가 고레스 3년에도 계시를 보고 그것을 기록했으니까 그때까지 살았던 것은 물론이고 어쩌면 그보다 몇 년 더 생존했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도 1장에 기록한 것을 그대로 둔 것은 고레스 원년이 기념할만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이지요. 그것이 무엇이였을까 하는 것을 지금까지 이야기 했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께서는 정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입니다. 즉 심판하셨으나 은혜를 베푸셨고 열방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확연히 드러내시고 그들을 도우셔서 해방하시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지구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하지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심판하시되 사단도 심판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여자의 후손이 뱀, 곧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온 우주에 드러내시고 마침내 지구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복된 삶을 영위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서 전체의 영적 복음적 내용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에 나타난 복음에 대한 예언적 표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구주 안에서 회복된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지요.

11.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군요. 기도하시고 다음 시간을 기다리도록 하지요.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예언의 확실성을 다시 한 번 강하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주를 통하여 반드시 회복되는 구원의 결과를 확신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회복되는 영원한 나라를 확신하는 중에 믿음으로 올바르게 살도록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